

### 제3회 Digital + Humanities: METHODS

■ 일시: 12월 6일(화) 15:00~17:00

■ 장소: 아주대 다산관 B108

#### “역사인구학을 통해 본 청대 만주지역 팔기인의 정체성, 1749-1909”

이병호 교수(아주대 사회학과)

개인 차원에서 민족적 자기 정체성의 유동성은 시공간적 보편성을 가진다. 이런 특징은 원나라, 청나라, 그리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까지 수백 년간 공식적인 민족 신분을 유지해온 중국에서도 두드러진다. 특히 민족 신분 간의 정책적 차별 혹은 차이가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민족 경계를 뛰어넘어 더 유리한 신분으로 진입하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개인의 민족 집단 소속감은 정부 당국의 공식적 민족 신분과 다르게 표현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개인 차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인 이름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1749년부터 1909년까지 청대 랴오닝 지역 팔기 호구대장[八旗 戶口冊]에 기록된 성인 남성 이름에 대한 9만 6천여건의 기록을 통해 당시 사회적 작명 풍습을 역사인구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분석결과, 표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군[漢軍] 소속 기인[旗人] 중 일부는 비록 공식적으로는 만주팔기 소속이 아님에도 스스로 만주식 이름을 선택했다. 나아가 일부는 성씨와 함께 만주식 이름을 병용했는데, 이는 성씨를 사용하지 않는 만주인의 풍습과는 다른 독특한 작명 방식이 청대 만주 지역에서 유행했음을 보여주며 민족 교류에 따른 문화 접변의 사례이다. 만주식 이름짓기는 전체 시기를 기준으로 평균 대략 4%를 차지하며, 19세기 접어들어 특히 양차 아편전쟁 이후 대폭 하락하는 추세였다. 청제국 지배집단인 만주팔기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지 못한 한군 기인들의 이러한 작명 풍습은 개인의 사회적 상승 이동 추구라는 사회학적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랴오닝 지역 팔기인들의 후에는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 본격화된 1980년대 대량으로 한족에서 만주족으로 민족 신분을 바꾸었으며, 이는 청대 한인들의 탈한화(de-sinicization) 현상과 유사하다. 결국 중국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 상승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체성의 경계를 넘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바로 이 점에서 중국인의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 Background: AJOU, Digital + Humanities = ISSUES & METHODS 시리즈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는 "디지털역사학의 정립과 확산: 생애주기 역사데이터 기반 조선시대 지배엘리트의 연망 연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022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역사학 연구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본 연구는 디지털역사학을 정립과 확산, 그리고 새로운 역사학 및 인문학 연구 패러다임 제시를 목표로 한다. (<http://www.ajoudhistory.com/>)